

‘무안공항 활성화’ 첫 데일리 국제선 20일만에 ‘참변’

지난 8일부터 태국·일본 등 운항 개항 17년 만에 최초 매일 취항 활주로 확장공사 내년 완공 앞뒤 “서남권 관문공항 발돋움 찬물”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는 무안에서 정기 국제선을 취항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노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전남도와 제주항공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 8일부터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일본 나가사키, 대만 타이베이 정기 운항에 들어갔다. 방콕행의 경우, 주 4회 운영 중이다.

제주항공은 무안공항이 개항 17년 만에 처음으로 이달부터 무안~오사카(일본), 무안~나리타(일본) 노선 등 데일리 국제선 운항을 시작하자 국제선 취항을 시작했다.

무안공항은 서남권 관문으로 기대를 모았다. 전남도, 무안군 등은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정기노선 협약 체결과 신규 정기노선 확대에 힘을 기울일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무안공항은 오랜 숙원이던 공항 활주로 확장공사가 완공을 앞둔 시점에 참사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전남소방대원 등이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의 실종자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무안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이라는 개항 당시 비전과 위상에 걸맞게 공항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연내 완공을 목표로 북측 활주로 연장사업을 3년째 진행 중이다.

사업비 492억원을 투입, 기존 2800m 인 활주로를 3160m로 확장하는 사업으

로, 현재 공정률은 70% 수준이다. 활주로 폭은 45m다.

활주로 길이만 놓고 보면 인천국제공항(3.7km), 김포국제공항(3.6km)보다 짧다.

전남도는 3km가 채 되지 않는 짧은 활주로는 화물주력기종인 보잉747 이용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항공물류산업 유치에도 중대 장애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2007년 개항 이후 줄기차게 활주로 연장을 건의해왔다.

실제 활주로는 짧아도 “안전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400톤이 넘는 항공기 운항이 제한되면서 미주노선 화물기(총중

량 500톤 안팎)의 이·착륙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2010년부터 메가 이벤트인 F1(포뮬러원) 대회가 열렸지만 장거리노선 항공기들이 “항공유 무게 때문에, 활주로는 짧은 무안에는 착륙할 수 없다”고 밝혀, F1을 통한 무안공항 활성화도 빈 수레에 그친 바 있다.

전남도는 개항 이듬해부터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를 수차례 찾아 국제공항의 위상에 걸맞은 시설 확장을 건의했으나, 사업비 확보는 번번이 우선순위에 밀렸고, 실시설계와 착공은 개항 14년 만인 2022년에야 비로소 뒤늦게 이뤄졌다.

전남도는 내년에 활주로 연장과 이후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공항 여객터미널과 바로 연결되는 고속철도(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이 완료되고나면 명실공히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대형 참사로 만시지탄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항공전문가 등은 “활주로 길이가 길면 비상착륙 시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착륙은 당일 바람의 방향과 세기 등을 감안해 늘 유동적인데다 조류 충돌과 랜딩기어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오지현 기자 jinyun.oh@jnilbo.com

외신도 사고 긴급 타전… “韓 정치적 위기 속 발생”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사상자 수십명이 발생한 가운데 외신들도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AP는 “여객기가 한국 공항에서 활주로에서 미끄러진 뒤 화염에 휩싸여 다수가 사망했다”고 전했다.

구조당국의 사고 수습 상황과 현장 모습, 사고 원인, 탑승객 국적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으로 촉발된 거대한 정치적 위기에 휘말린 가운데 발생했다”고 조명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소식을 웹사이트 메인 뉴스로 비중 있게 다루며 소식을 실시간 보도했다. 사고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처음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CNN도 “한국 정부가 본격적인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행정부 수뇌부 혼란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조명했다.

NHK와 아사히 등 일본 주요 매체도 사고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다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사고 소식을 속보로 보도했다.

뉴시스

금융당국 “사망자 유족 등 신속 피해보상 지원”

사고 항공기 10억달러 보험 가입 보험가입 파악 등 지원체계 구축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해당 사고기가 총 10억3651만 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보험금 지급 등에 있어 신속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신속히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651만 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가 10억 달러(약 1조4720억원)이며 항공기 자체 손상에 대한 보상한도는 3651만 달러(약 537억원)이다.

항공보험은 계약규모가 큰 특성상 여러 보험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데 사고기의 항공보험은 삼성화재가 간사사(社)이다. 해당 보험의 99%는 해외재보험사에 자사의 보험책임을 이양하는 출재계약이 맺어져 있다.

금융당국은 간사사인 삼성화재를 비롯

해 5개 보험사를 중심으로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는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여부 확인과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손 보험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들이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뉴시스

채권신고공고

본 협동조합은 2024. 11. 21. 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산되었으며 본 협동조합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5. 2. 10. 까지 그 채권액을 본 협동조합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2월 30일

순천소합협동조합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173, 106동 1206호 (용당동, 용당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 청산인 권양자

광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5390 특수폭행피고인 이광주

위 피고인은 특수폭행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4. 12. 24.
판사 최유신

부동산매매

-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산 29-1 6968㎡(2108평)
-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산 892-4 550㎡(166평)
-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전 920-1 3973㎡(1202평) = 11491㎡(3476평) 9억원
-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전 919-1 2386㎡(722평)
-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전 919-13 44㎡(13평)
-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창 919-14 1072㎡(324평) = 3502㎡(1059평) 3억원

전체합계 14,993㎡(4535평)

계획관리지역, 도로에서 진출입가능

010-9119-4981

말하는 법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며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 각 분야별 감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원채권, 상가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